

“아산재단, 713명에게 장학금 44억원 전달”



아산재단 정몽준 이사장(좌측 마지막)이 이흥구 이사과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 장학생 대표로 장학증서를 받은 KAIST 의과대학원 박사과정 강준호 씨, 연세대 의과학과 박사과정 유세영 씨(왼쪽부터)와 함께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지난 2월 25일 서울아산병원에 위치한 아산생명과학연구원 1층 강당에서 2021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설립이념에 따라 장학사업을 펼쳐온 아산재단은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생 50명, 대학생 583명, 고등학생 80명 등 총 713명에게 장학금 44억 원을 전달했다.

대학원생 장학생 50명은 의생명과학분야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에서 35명, 해외에서 15명을 선발했으며 졸업 시까지 매년 2,000 ~ 4,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학교 장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으며, 이 가운데에는 ‘성적우수장학생’ 136명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나래장학생’ 127명, 신체적 장애를 딛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다솜장학생’ 32명,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재능나눔장학생’ 58명이 포함됐다. 또한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국가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 230명도 선정됐다. 나래장학생과 다솜장학생 159명에게는 등록금 이외에 생활비로 월 20만 원을 지원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소득가정의 고등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강권과 교재를 지원하는 이러닝(e-learning) 장학생 80명도 선발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문을 보면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 주식에 ‘영끌’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투자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면서 “장학생 여러분들도 각자의 분야에 성공해서 훗날 후배에게 투자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며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아산재단은 1977년 재단을 설립하면서부터 꾸준히 장학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3만5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78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매년 2월, 250여 명의 장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하는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해온 아산재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장학생 대표 장학생 15명만 참석하는 행사로 축소 진행했다. 📷 글 편집부 / 사진 송은지